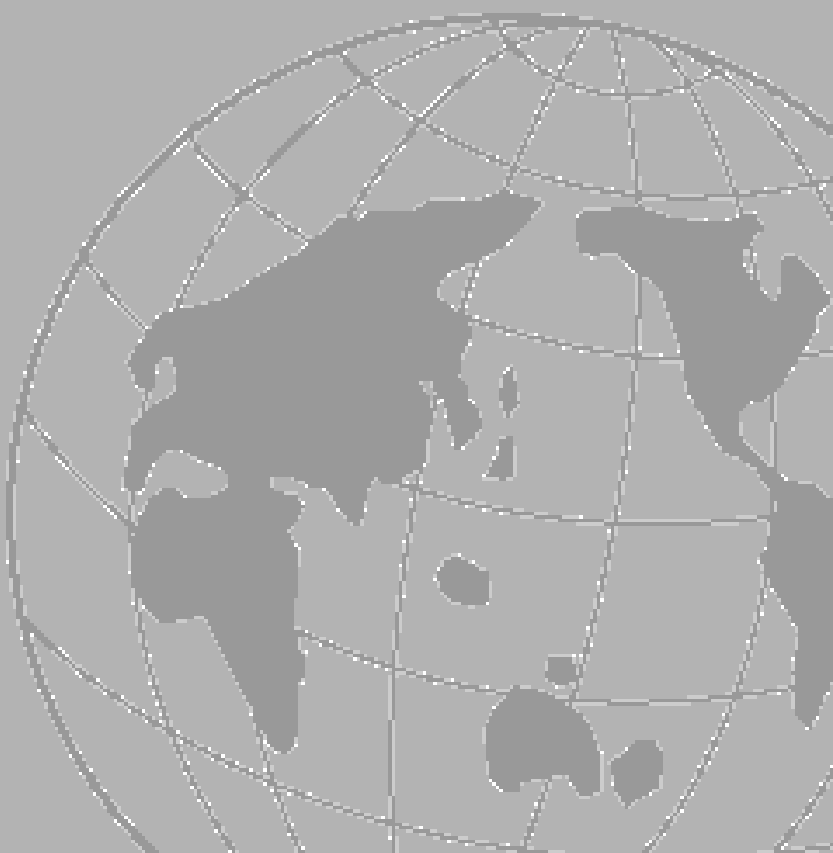


자료

- 한 · 프랑스 대통령 간의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문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간의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문

(서울, 2010. 11. 12)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조 외규장각 왕실의궤 전체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해결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한한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왕실의궤에 대한 5년단위 갱신가능 일괄대여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이행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합의를 조속히 공식화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은 이행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왕실의궤를 담은 이 의궤들은 한국국민 정체성의 일부이며, 한국의 얼의 근본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가 한국에 의궤를 대여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특성을 가지는 조치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이 왕실의궤 대여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오랜 우의의 역사에 입각한 각별한 양국관계에 기반한 것이다.

양국 국민들간 문화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 상호 교류의 해를 추진기로 결정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상호교류의 해 및 여타 계기에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기 왕실의궤 일부를 전시품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MOFAT)